

‘10·24자유언론실천선언’의 과정과 그 증언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희망세상〉 가족들께 10월 인사를 드립니다. 이 10월에 저는 무엇보다도 1974년 ‘10·24자유언론실천선언’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기관원들이 신문사, 방송사에 상주하여 기사 내용을 일일이 검열하던 시절, 특히 편집국장과 기자

들을 불법으로 연행하고 협박한 혐악했던 시절,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은 바로 그 전날 송건호 편집국장 등 3명을 불법 연행한 중앙정보부에 맞서 자유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첫째, 신문·방송·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간섭도 배제하고 둘째, 기관원의 출입을 단호히 거부하며 셋째,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거부한다는 3개항의 결의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주장이지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선언과 결의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이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도 집회를 열고 언론자유 수호선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이날 ‘10·24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철야농성 끝에 1면에 3단으로 선언문을 보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전국의 기자들이 쫓겨대회를 갖고 선언문을 채택, 언론자유 옹호를 결의합니다. 학생, 시민,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인권회복, 구속된 이들을 위한 석방운동 그리고 민주화 투쟁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언론계로 확산되

었습니다. 이미 1971년 5월 동아일보 기자들을 필두로 전국의 기자들이 언론에 대한 외부압력을 배격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었고 1973년 11월에도 동아·조선일보 기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기자들이 두 번째로 언론자유수호 쉼기대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1974년 ‘10·24자유언론실천선언’은 결정적으로 한국 언론사의 한 획이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큰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뒤 12월 26일 정부는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을 시작해 광고주들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무더기로 광고를 해약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이 날짜 신문의 4, 5, 6면의 광고란을 백지로 둔 채 발행했습니다. 유신체제의 새로운 수법의 기발한 언론 탄압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광고 탄압이라 부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동아일보의 광고 해약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압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재야단체와 종교계는 광고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일보 돕기 운동을 거국적으로 펼쳤습니다.

12월 2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2월 28일에는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을 꾸짖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은 ‘암흑속의 햇불’이라는 제목으로 유신체제의 모순을 지적한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과 함께 그동안 언론에 전혀 실리지 못했던 각종 선언문을 요약하여 12월 31일자 8면 전면에 광고로(당시 신문은 8면이었습니다) 게재했습니다. 세상이 개벽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

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유언론에 대한 염원과 소망을 광고란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눈물의 감동적 지면이었습니다.

75년 1월 7일 동아일보와 장기광고계약 중이던 16개 대기업 광고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라며 광고계재를 중단하고 무더기로 해약하는 일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문을 게재한 민주회복국민회의 사무국장 홍성우 변호사, 가톨릭 노동청년 여회장 정인숙 등 많은 민주인사들을 중앙정보부가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또한 '육군중위'가 실린 광고 때문에 보안사까지 동원되어 광고국장을 연행하는 등 매우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성만을 강요하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9.84% 중 교묘하게 찬성 73%의 지지를 확보한 정부는 2월 15일부터 3일간 긴급조치로 구속한 160여 명의 민주인사들을 석방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유효정착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동아일보에 폐간 압력과 함께 사장을 무섭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1975년 3월 8일 경영난 때문이라며 기자 등 18명을 갑자기 해임했습니다. 이에 기자들이 "우리의 봉급을 인하시더라도 해임을 철회할 것"을 건의한 후 낮에는 신문을 제작하고 밤에는 농성하는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기자들은 결국 1975년 3월 17일 새벽 정부와 사주가 동원한 폭력배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성금과 함께 광고로 격려했지만 동아일보는 끝내 이 뜻을 배신했습니다. 정부에 굴복했습니다. 당시 민주회복국민회의 대변인이었던 저는 함석헌 선생, 공덕귀 여사, 이태영 변호사, 문동환 목사, 김철 선생 등을 모시고 동아일보 김상만 사장을 두어 차례 찾아가 격려하며 특히 국민들의 힘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는 75년 1월에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성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힘 쥐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을 이유로 기자들을 해고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3월에 달려간 우리에게 그는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기자들이 봉급을 인하여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격려 광고로 동아를 지지하고 있으니 독재타파를 위해 자유언론을 지켜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우리는 그의 부친 김성수 님의 행업까지 언급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한 어조로 그에게 윤리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거듭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시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압력 때문입니까?" 라는 또 한 분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한낱 상업신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호소적 질문에 계속 우리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비굴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 그리고 우리민족과 우리 현실의 한계를 직시하며 매우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자유언론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1974년 10월 24일부터 1975년 3월 17일까지 치열했던 자유언론 실천투쟁을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와 1910년 3월 26일 안 의사의 순국과 연계하여 묵상합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1주년을 맞이 10월에 새삼 동아투위 기자들을 기리며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할 성실한 역사적 책무를 되새깁니다.

불의한 정권 앞에서 "아니오!"를 외친 동아투위는 바로 기자들의 길잡이입니다. 자유언론이 깃뻏힌 그날, 자유언론은 바로 동아투위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시대적 반성과 함께 우리 모두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